



통우컬럼

지금은 껄 때라

비대면 예배가 지속됨에 따라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 혹여 우리 성도들이 영상에 배라고 소홀하게, 대충 드리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신앙 점검을 하라는 차원에서 군산교회 김축복 목사의 아내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영이 빠져나가 보니, 우리 교단의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시다. 저 역시 열심히 천국에 올라가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습시다. 그러다 문득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고 하셨는데 어찌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시다. 그런데요, 제가 힘겹게 천국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앉아 있으면서 ‘넌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냐?’ 하고 물으셨습시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지금까지 정말 좁은 길로만 왔어요.’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제야 다정하게 ‘그러니까 네가 여기 왔지. 이리 와라.’ 하시고는 ‘저 밑을 보라.’ 하셨습시다. 밑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오려고 열심을 내는데, 도중에 툭툭 떨어지는 자들도 많이 보였습시다. 너무 안타까웠습시다.”

누군가 나에게 “목사님, 믿는 자 중에 몇 % 나 천국에 갈까요?”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나는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50% 정도 될 거라 말했다. 안 믿는 자들이야 100% 지옥에 가지만, 믿는 자들 중에 절반가량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다. 대충대충, 미지근하게 신앙 생활한 자들은 못 간다는 말이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예외일까?

지금 마귀는 패재를 부르고 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교회 문을 닫게 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이다. 이때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때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속까지 짙은 알곡인 신앙인은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만, 겉껍질뿐인 가라지 신앙인은 나태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니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싶다.

가장 불쌍한 자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자다. 이왕 믿는 것, 열심히 믿자. 태풍이 불 때 가지가 비로소 보이는 법, 이럴 때 나의 신실한 신앙을 보여드리자.

안보 없는 자유와 평화는 사상누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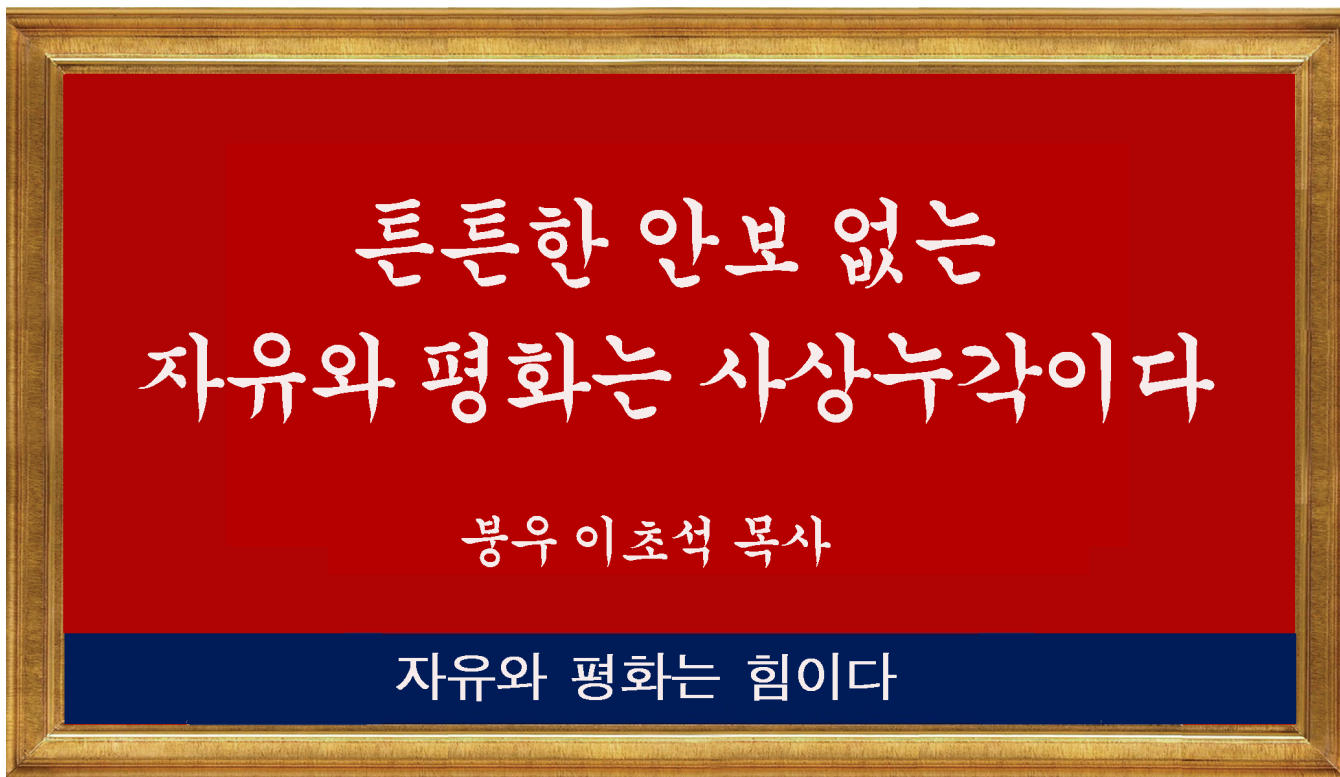
지난 주 광복절을 전후로 하여 아주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먼저 지난 8월 15일, 봉오동 전투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저 멀리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그의 서거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민 모두가 특히 감격했던 장면은 장군의 유해를 이송하는 특별수송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하자 공군이 운용하는 모든 기종의 전투기가 발진하여 특별수송기를 좌우에서 호위하는 모습이였다. 비록 장군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

고했고, 실제로 현지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한 모든 크리스천의 기도를 요청하는 눈물의 영상을 보내왔다. 미군에 부역했던 자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난주일 목사님은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의 영상을 보여주시며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할 것을 촉구하셨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는 세계 선교를 다니며 지구를 150바퀴 이상 돌았고, 수많은

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군대복무시절, 월남전에 파병되기 위해 매일 ‘국가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를 외치며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파병되었던 내 전우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일체의 희망을 잃고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나는 우리 젊은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하고 저 이역만리 타향에서 쓸쓸히 죽어
갔지만, 그가 꿈꾸던 해방된 조국의 품으
로 다시 돌아와 온 국민의 환영 속에 안장
되는 장면을 보며 모두가 국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가는 것이 국가가, 후손들이 할 일
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난 8월 17일, 중동의 아프가니스탄이 미군 철수와 함께 다시 20년 만에 탈레반에게 장악된 사건이다. 카불공항은 탈레반 세력을 피해 탈출하려는 아비규환의 장면들로 가득했다. 시리아에 이어 또다시 대형난민의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거기엔 국가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각자도생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 더구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등장은 아프가니스탄 내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을 예

은 나라를 경험하며 ‘국가가 없는 백성은 국가가 있는 개만 큼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10차에 걸쳐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진행하며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없는데, 자유는 무엇이고, 경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튼튼한 안보가 없이는 아무것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이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에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그 원대한 꿈도 이 땅에 먼저 평화가 담보되어야 하고 피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책무입니다. 반세기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이 나라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 흘린 이유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불구경하듯, 남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언제든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도 내부로부터 단결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질 것(마12:25)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을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17~18)

복음(福音)이 무엇인지 알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福音)은 뜻풀이 그대로 복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잘 사는 것이고, 아픈 자에게 복음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망한 자에게 복음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고, 죄에 억눌린 자에게 복음은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1:16).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가난에서 구원을 주시는, 병에서 구원을 주시는, 모든 억압된 것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물 떠난 고기는 벌레 밥이 된다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53:5).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문(門), 의의 문, 평화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악랄한 놈이 있으니, 바로 악한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이것들을 쫓아내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놈들은 칼이나 총으로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쫓겨납니다. 왜냐?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마1:21),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시”(요17:11)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이니,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권세를 예수께 주시고(마28:18)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 이름 앞에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빌2:9~10). 그래서 예수가 귀신을 쫓으니 귀신이 떠나고, 앓은병이가 일어나고, 병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무법천지가 되겠지요? 권세자가 안 계시니 말입니다. No.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요14:26).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행2:38), 그 성령이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떠는 예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장기간 해외에 가면서 아무 대책도 해놓지 않고 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셨겠습니까(요14:18)?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 에 만 물과 만 인이 복종하는 예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라는 이 말씀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성능 좋은 총과 무제한의 총알과 돈을 주고 가신 셈이니 그것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충만만 잃지 않으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건강의 문, 행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과 총알을 잘 간수하지 못하다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돈도 도난당하고, 몸도 구속이 되고, 악한 것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교회는 다니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을 받았으나 소멸한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충만을 입는데, 기도하는 게 힘들어서, 바빠서 기도하지 않다가 성령이 소멸하고 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 다시 마귀가 날뛰고, 귀신이 판을 치는 세상

이 되는 겁니다. 그것들의 울무에 얽매어 세상으로 끌려가 죄를 짓고, 병들고, 망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처하지 못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총은 있으나 총알이 없는 자요, 둘째는 총도 있고 총알도 있지만 총구가 녹슬어서 급하게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알이 나가지 않는 자요, 총도 총알도 다 정상적이건만 ‘설마’ 하면서 믿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자요, 넷째는 총에 대한 기본지식이 아예 없는 자입니다.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은 다 마귀가 귀신을 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

면 됩 니 다 . 그 런 데 첫째,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쫓을 수 없

고, 둘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소멸된 자도 쫓을 수 없고, 셋째, ‘설마 내가 쫓는다고 나가겠어?’ 하며 의심하는 자는 쫓을 수 없고, 넷째 아예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자도 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원인이 가르치는 자가 소경이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마15:14)?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이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막1:27)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적 대부인 로버츠 목사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는 정말 ‘이게 어찌이뇨?’ 하고는 놀랐습니다. 목회를 수십 년 했는데 자기는 이런 영적 비밀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왔을 때 기도원에서 밤에 제게 찾아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 이것저것을 묻고 배웠던 일이 있습니다. 하긴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도 성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다가 바울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았지 않습니까(행19:1~7).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가 기차를 탔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와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보니 입술이 퍼런 게 심상치 않아 물었더니, 아기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는 중이라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교회회는 다니시나?’ 했더니, 다닌다기에 ‘그럼 목사님께 기도를 받지 그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기도해줘도 되겠느냐 했더니, 좋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이의 입술이 발개지면서 엄마 젖을 빨았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닙니다. 배우면 되니까요. 그런데 모르면서 모르는 것이 정상인양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같은 기차에 탄 네 명의 목사님들이 ‘이초석 목사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데 잘못됐다.’며 서로 수군대고 있더라고 그 전도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전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사정을 해도 믿을 겁니다. 제가 집회 때 먼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요, 둘째는 이 능력을 보여주고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집에 비상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래야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웅달샘 ::

돌기둥이나, 모래기둥이나?

성경은 복을 받았던 자들을 낱알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세상 약속처럼 망각되거나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복 받는 체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들에게 야곱의 신앙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형 대신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다 받고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 한곳에 이르러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분주하다. 바로 천사들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너의 자손이 이 땅에 편안할지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잠이 깬 야곱은 이 굉장한 약속 앞에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십분의 일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하였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요, 종이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는 표적으로 내가 십분의 일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다. 십일조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의 맹세, 즉 서원을 하고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즉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결코 변치 않는 돌기둥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기름을 붓는데, 옛날 가난한 시절 떡을 갖다 놓으면 심술궂은 아이들이 남이 못 먹게 침을 바르는 것처럼,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못 건드린다.’ 하고 그 약속을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버린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고 하늘가는 문을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것이고 하늘가는 문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속에 거하시며 그 약속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e

오늘 우리 속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돌기둥이 되었는지, 아니면 모래기둥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 꾸는 꿈을 신뢰해서 수천 년의 믿음을 변개치 않고 지킨 것같이, 오늘날 꿈이나 환상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원 삼아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돌기둥이 되고 타락한 세상을 지탱하는 돌기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신기류 목사

:: 신앙논객 ::

고귀한 자유를 위해

지난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제 치하 36년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이한 이 날, 아시아 대륙 반대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무장조직 탈레반이 수도 카불에 있는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지난 9·11 테러 이후 20년 동안 벌어진 미국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음을 선포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교의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을 평화적으로 통치하며 여성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전통 의상인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한 여성 1명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그리고 아프간 국기를 든 시위대를 향해서도 총을 난사하여 3명이 죽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철수하는 미군을 태우기 위해 운항을 준비하던 수송기에는 자유를 빼앗긴 도시를 탈출하려는 아프간 민간인 수백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앉았고, 심지어는 수송기가 이륙하는데 그 날개와 엔진 쪽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자신의 조국과 도시를 뒤로 하고 탈출하려 했을까? ‘나라 없는 백

성은 나라가 있는 개만큰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목사님의 일성(一聲)처럼, 더 이상 조국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불철주야로 눈코 뜰 새 없이 켜는 방호복 안에서 고생하고 있고, 기업가들과 위정자들은 백신 개발과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서로 돕고 협력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도 모자란 판국에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종교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와 동족상잔의 상황에서 오늘의 선진국이 된 것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툼과 분쟁은 자유를 쪼먹는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자!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이런 효자가 되라!

그 옛날, 어질기로 소문난 임금님이 있었다. 어찌나 백성들을 위하는지 집집마다 노릇가락이 끊기는 법이 없다. 되레 백성들은 ‘저렇게 몸도 돌보지 않고 국사에 전념하시다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어쩌나’하고 걱정할 정도였다.

특히 그 임금님은 효성이 지극한 터에 어린 나이에 그만 부왕을 잃었다. 그 임금님은 이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낡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가 저 하늘과 같건만 그 은혜를 채 깨닫기도 전에 머나먼 곳으로 자취를 옮기셨으니 어찌 가슴이 안 무너질까! 그레 영혼만이라도 편히 잠들기 바라는 마음에 능을 가꾸고, 주변에 나무를 그득 옮겨다 심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능을 돌아보는데 어찌 된 게 소나무가 앙상하여 도체 푸른빛을 찾아볼 수 없다. 영문을 몰라 신하들에게 묻자니 송충이 때문에 그리되었다며 몸 둘 바를 몰라 한다.

임금님은 이들을 지그시 바라보다 비통한 마음에 “그게 어찌 경들의 탓이겠소. 이 모두 과인의 덕이 부족한 연고가 아니겠소. 내게 그 송충이라는 벌레 좀 보여 주구려.” 한다.

신하들은 부리나케 송충이를 잡아 대령했고, 그 흉물스런 물골을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던 임금님, 갑자기 송충이를 잡아 올리더니만, “부왕이 누워계신 수풀을 갉아먹느니 차라리 내 불효한 창자를 갉아먹어라.” 하고 단숨에 입에 털어 넣는 게 아닌가! 미처 신하들이 말릴 겨를도 없었다.

그 뒤 어디선가 수많은 새들이 날아들어 그 송충이들을 다 잡아먹으니 다시 나무들은 제빛을 찾아 그 푸른빛으로 능을 덮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임금님의 그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이런 효성이 있는가? 간간이 들려오는 패륜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 오늘의 메시지 ::

뱀 같은 지혜

성령에 사로잡힐 때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그래서 귀하다.

육십을 넘어 칠십을 향해가는 내 인생 열차에 솔로몬이 일찍이 갖춘 지혜를 실지 못하니 아쉽게 그치었다. 그저 간구하고 간구할 뿐이다. 주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허튼소리를 아니하신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견디는 힘이 된다.

파격과 원칙을 같이 갖춘 인물을 본 적 있는가. 뱀 같으면서 비둘기 같은 자. 이리 속에 보내는 양같이 순수하고 선하지만 백수의 왕 같은 사자의 위엄을 갖춘 자!

사람은 본 이상, 꺾어보고 배운 이상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수많은 난관을 겪게 하시고 쓰신다.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나 그 이상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한다. 이 육신의 종이 된 혼의 영역을 넘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내 영이 내 주인이 돼야 한다. 어떻게 그리될 수 있는가. 별 방법이 없다. 기도 밖에는.

암 수술과 항암치료 후 회복을 위해 인근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동호회 여러 사람들과 게임하며 어울려야 하는데, “나는 스님 정도 되는 불교신자다. 목사라고 별거 있나? 술 한잔하자.” 하니 참 처신이 어렵다.

오래전 송의동 인천교회 시절, 교회로 몰려온 강패들이 행패를 부릴 때 목사님은 화병을 벽으로 던지며 탁자 위로 뛰어올라, “난 너희들 무서웠으면 목사 안 됐어! 감히 어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행패냐?” 하며 서슬 퍼런 기세로 두목을 제압했다는 일화를 들었다. 그 담대함과 기지는 어디에서 기인되었나. 영의 영역이다. 성령의 영역이다.

알고도 속아주고 가라지도 뽑지 않는 지혜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 어디까지 비둘기 같고 어디까지 뱀처럼 처신해야 하는지... 그래도 배울 게 있고 고칠 게 있으니 살만한 이유가 된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스승을 지적에 두고 있으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더 많이 배우고 닦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요원하다. 다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 뿐이고, 장차 이를 꿈같은 미래를 그리며 산다.

이광주 목사

하나님의 본심

6·25 직후 김일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도 충분히 낙원을 만들 수 있다는 교만이었습니다. 김일성의 교회 숙청 작업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표면적으로는 완벽하게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힘센 자가 말한 것이 곧 진리가 되었고, 거짓은 권력을 힘입고 당당히 왕 노릇 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김일성 절대화 작업이 시작되었고, 김일성은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도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하었는데, 이때부터 김일성은 초법적인 존재에서 국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북한 인민에게 김일성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 사람들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김일성을 열광하며 찬양했습니다. 잘못했다는 판단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의 신격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경배체제가 김일성을 섬기는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올라간 것입니다.

남한교회는 북한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70년대 중

반부터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해마다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이 ‘주체의 농업’을 연구했고 북한의 모든 농장에 적용했지만 계속 감소하였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인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료가 없기 때문에 취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또 감소했습니다. 80년대 말 즈음에는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 전역의 땅을 다 뒤집어엎고, 가장 좋은 비료인 인분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안된 것은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한국 태풍 지도를 보면, 10번의 태풍이 단 한 번도 북한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당시 북한은 태풍이 북한으로 올 것으로 예측해 모든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했는데, 태풍은 경로를 바꿨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의 태풍들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물 없는 기간이 무려 20년이나 되었습니다. 김일성을 우상화하기 위해 만든 배급시스템이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최정점이었던 1999년 8월, 파울이라는 태풍이 드디어 북한으로 지나갑니다.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남한에서 대량의 쌀과 비료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 비료들은 북한 전역에 풍성히 깔렸고, 인민들은 풍년을 기대했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태풍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도 가득 저장해놓았습니까. 그리고 보란 듯이 태풍 파울이 북한을

휩쓸었습니다. 홍수에 깨끗이 씻겨 내려간 땅을 바라보며 북한 농민들은 울었습니다. 이 시기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받는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경우 하나님은 ‘백성의 수고를 헛되게 하며,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레26:20), 백성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며(레26:26),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레26:29), 성읍을 황폐케 하고, 땅을 황무케 할 것’(레26:31~32)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북한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우리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임한 엄청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슬프고도 강한 의지를 봅니다. “나는 반드시 내 백성, 북한을 되찾으리라.” 지금 북한은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싫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레26:44).

박영신

가장 빠른 지름길

최근 한 영화를 보다가 이런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가 딸에게 해주는 이야기였는데, ‘최고가 되려면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해라.’는 내용이었다. 듣자마자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다. 경쟁이 없는 곳을 찾으면 그곳에서 더 빨리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또 최근 어느 방송을 보다가 리코더를 잘 다뤄서 유럽에 유학을 가고,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딴 리코디스트 연주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누구나 쉽게 학교에서 접하는 가벼운 악기인 리코더라 그 악기로 전공을 삼을 생각을 누구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녀는 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마하고 실력을 갈고 닦으니 최연소 입학, 최연소 졸업 등 최초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다 얻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리코더를 선택했기에 수많은 천재적인 피아니스트들과 바이올리니스트와의 경쟁을 자연스레 피하고 그 분야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찾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가기 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희소성을 보고 그쪽에 에너지와 노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훨씬 경쟁력 있다.

그런 길을 더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지혜가 필수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늘 기도하고, 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또 책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을 얻으려 노력하다 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지름길을 누구나 언젠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나도 노인 우울증인가?

과거에 비해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요즘 노인 우울증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일생생활에서 우울감을 느끼며 삽니다. 우울감은 그날에 따라서 기분이 좋기도 나쁘기도 하는데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중의 하나로 건강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울증은 하루하루의 변화가 아닌 오랜 기간, 즉 두 달 이상에 걸쳐서 지속적인 기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질병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노인 우울증 증상으로는 첫 번째 기분의 변화, 즉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무기력하고 힘들고 슬프며 불안감과 초조감이 더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에 증상이 더 심합니다. 두 번째로 잠을 잘 못 이루거나 금방 깨거나 수면의 리듬이 불규칙하고, 입맛이 없어지니 살이 빠집니다. 세 번째로는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늘어나고,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의심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노인기에 특정한 사건 이후나 은퇴 이후로 우울증 증상이 발병되기 시작하는 특징을 보이고, 때론 관절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증상이 실제보다 좀 더 심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소화문제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모습으로 치매로 오인되기도 쉽고, 매사에 흥미가 줄어듭니다. 무엇보다도 증상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한국판 노인 우울척도 단축형(GDSSF-K)으로 15가지 문항이며, 예(1점)와 아니오(0점)로 설문지를 체크해보아 현재 노인 우울증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설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2. 전에 하던 취미생활이나 활동을 많이 중단하시나요?
3. 생활이 공허하다고 느끼나요?
4. 흔히 지루하게 느끼나요?
5. 보통 기분이 좋은 상태인가요?
6.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하나요?
7. 대부분의 경우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8. 흔히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끼나요?
9. 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을 더 좋아하나요?
10. 다른 사람보다 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1. 살아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2. 자신이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3. 힘이 넘치는 상태인가요?
14. 자신의 상태가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느끼시나요?
15.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나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4점 이하는 정상범주로 보며, 5~9점 사이는 경증의 우울증, 10점 이상 중증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지만, 설문 검사는 진단이 목적이 아닌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증상이 심하다면 가까운 전문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보이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건강 역시 행복한 크리스천이 지키고 가꾸어야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Dr. 설재현 집사